

일간지 출판기사 색인

- “책에서 지혜언자” ‘책씻이’ 풍속 재현-대한어머니회서 뜻깊은 행사...흰송편 먹으며 독후감 나눴다 (동아일보 7월18일 金世媛기자)
- 해외문학이론 소개 책자 홍수-루카치 등 문학사회학계열 압도 / 80년대 우리사회 구조적모순 인식이 바탕...책임있는 번역, 현실운동과 접맥 큰 과제 (한겨레신문 7월19일 조선희기자)
- 「親族用語」 출간 “집안호칭을 올바르게”-崔在錫교수 조선총기 이후 용어정리 / 핵가족화 따라 분별없이 사용...남편을 ‘자기’ ‘아빠’로 쓰기도 / 아버지 간접호칭 33가지...초기엔 친가, 외가 구별안해 (한국일보 7월19일 金龍善기자)
- 월북작가 작품 전면 해금-모두 120여명...·8·15이전분 출판허용 / 洪命燾등 5명은 계속 금지...미술·음악·연극도 허용검토(중앙일보 7월19일)
- “이 한권의 책으로 여름을 시원하게”-전문가 10인의 추천도서-「격정시대」 중국 동포의 자전적 체험소설...「말의 뜻...」 80년대 중반 가혹한 현실 풍자(동아일보 7월19일)
- “思想·표현의 「족쇄」 풀때 됐다”-「언론·출판 惡法개폐 공청회」 지상중계/언론등록, 신고제가 바람직/국가보안법의 출판규제 독소조항 폐지돼야/창작활동 위축시키는 공연법도 전면 손질을(중앙일보 7월20일 康英鎭기자)
- 출판관련법 개정안 국회제출/등록취소요건 강화 등...외국자본의 유입금지 조항 신설/출판계선 출판활성화 방향 기대(한겨레신문 7월22일)
- 출판연구소, 해외출판정보 서비스 본격 업무 시작-美·英데이터베이스 이용...연구소 대행 의뢰시에는 사용료 및 8~10%의 금액이 가산(서울신문 7월22일)
- “해금도서 출판 햇빛본다”-李泰俊 15권 전집발간/불협계곡·서점들 “好材”/주요작 일부 이미 음

- 성 출판 (매일경제신문 7월 25일 金炳在기자)
- “중·고교 국어책 내용 크게 바뀌어”-문학계 “남·월북 문인 해금작품도 신자” 주장/현행 교과서 현실과 먼 관념·반공작품 일색/경향파·사실주의 기술 필요(한겨레신문 7월26일 조선희기자)
- “올림픽 관련출판물 쏟아져”-올림픽 역사·인간 드라마 등 소개 (국내용)/한국의 문화·교통·관광안내 다뤄(외국인용) (동아일보 7월26일 宋煥彥기자)
- 국사편찬위, 「大韓民國史」-政治史분량 축소간행/경제, 문화분야의 절반수준...편찬규형영어/5권관련부분 서술내용 지나친 정무편향적(동아일보 7월26일 洪贊植기자)
- 현대正史 「大韓民國史」출간-국사편찬위서 단행본으로 펴내...해방이후부터 5권까지 서술...이데올로기를 탈피, 객관성 견지(서울신문 7월26일)
- 건국후 첫 「大韓民國正史」출간-광복서 5권까지 망라...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 분류사적 서술 (조선일보 7월26일 金泰翼기자)
- “해결철학연구 활발”-87년 학회창립, 학술대회 등 열여...英美철학 위주 탈피...학계 새바람(서울신문 7월27일)
- 해방후 현대사 종합 「大韓民國史」출판-정치·경제 등 대부분 나뉘어 기술...학계 연구 탄력적 수용 큰 의의(한국경제신문 7월27일)
- “방학대목 교육관계책 출간 밀물”-「푸른나무」 ‘아이들 나라’ 등을 무크지만 4종 창간...이론서적, 편지모음 등 종류 다양(한겨레신문 7월27일 신연숙기자)
- 國編, 「大韓民國史」 첫 발간-해방후 正史...정치·문화 등 분류사적 서술/경제 분야가 35% 차지 (경향신문 7월27일 朴正鎭기자)
- “증권정보매체의 홍수”-단행본 80여종에 일간경제지 러시/대중화바람 속 ‘신속 정확’ 내세워 판매경쟁(스포츠서울 7월27일 곽영완기자)
- 현대사 40여년 조명 「大韓民國史」 출간-국사편찬위, 해방이후 5공화국까지(한국일보 7월28일)
- “張萬榮 遺稿詩 「놀따라 등불따라」 출간-생전 假製本됐던 것...死後 13년만에 햇빛/모더니즘계열 작품 72편 실려(서울신문 7월28일)
- 빨치산 체험수기 「남부군」 소리 없는 화제-前의원 李泰씨 저술동

- 기 밝혀/민족사의 아픔...지리산 주력부대 비극그려(조선일보 7월28일 金泰翼기자)
- 출판협회 부회장 2명·상무 6명 또 사퇴-새모습 찾기 위한 작업분주(한겨레신문 7월28일)
- “여행용지도 60여종 쏟아져”-낮선 길, 원하는 장소 불편없이 안내/자가운전용 인기선두...보도지도도 등장(스포츠서울 7월28일 최철호기자)
- 「교육과 출판」 공개토론회-교과서 자유발행제 바람직/「검인정·國定制는 중앙집권 통제”(동아일보 8월1일 宋煥彥기자)
- “열린 지식 위해 교육·출판계 합심”-「교육과 출판」 공개토론/교육, 국가독점 견제출판 저해(매일경제신문 8월1일 金炳在기자)
- 「교육과 출판」 공개토론회-정당한 ‘교육권’ 확보가 핵심문제/교육·출판계 협의 기구 바람직/교과서 자유 발행·선택에 의견 일치 (한겨레신문 8월1일 이인우기자)
- 「북의 시인」 임화-전집·선집으로 엮는 파란의 문학 재적/비극적 삶 전모 밝힐 전집 6권 등 출간 예정(한겨레신문 8월2일 조선희기자)
- “교과서제도 개선 급하다”-출판문화 혁신 위한 공개토론회...주입식 입시교육 만드는 교육과 교과서제도 지적/획일화 강요로 이념통제 자초(한국일보 8월2일 金龍善기자)
- “베스트셀러 새 판도”-빨치산수기 「남부군」 폭발적 인기/순씨일가 비리 풍자집과 수위권/통일논의 확산으로 「북한방문기」 등도 인기 (동아일보 8월2일)
- 화제의 책 「역사와 교육」-올바른 현장교육 지침서/「역사교육 위한 교사모임」이 다채로운 글모아 펴내...현행 교과서 왜곡 제작과정도 낱낱이 지적(한겨레신문 8월3일 신연숙기자)
- 李珣의 문집 완역 「栗谷全書」 7권 출판-「성학집요」 「동호문답」 등 대표작 총망라/詩·賦·辭·書簡도 주역·원문 영인 실어(한국경제신문 8월3일)
- “전문 「외곡」 출판사가 는다”-미술 「悅話堂」 연극 「에니」 등 여러 분야/「열린책들」...러시아 관련 서적만 출간/다양·深度있는 전문서적...국제화 대비(매일경제신문 8월4일 金炳在기자)
- 이름뿐인 출판사, 1,229개-총

- 3004개社 중 40%가 책 한권 못내 「무실적」양극화 심화...상위 36개社가 전체 36% 발행(조선일보 8월5일)
- 해금된 월·남북 문인작품, ‘저작권문제’ 이슈로/단절기간 등 특수상황...해석 유권기관 없어/정지용 등 타결, 박태원은 분쟁중/가족단체 구성, 출판계와 협조를(서울경제신문 8월7일 姜升遠기자)
- 출판계, 해외시장 “강건너 불”-정보 어두워 진출기회 잃어/말안통하고 돈든다...국제도서전 출판품 기피(중앙일보 8월8일 李憲益기자)
- 해금작가 출판붐-20여명, 90여종 시판...대부분 선집/일부선 20~30권 분량 전집기획도(한국일보 8월9일 金龍善기자)
- 李憲益씨로 밝혀진 「남부군」 저자 李泰씨-“「남부군」 집필은 죽은 사람에 대한 책무”/실재인물 140명...모두가 픽션 아닌 사실/중앙통신 중군기자로 갔다 빨치산 활동...생포, 석방된 연탄장수로 鄭海永씨와 인연...6대의원 지내(동아일보 8월9일 宋煥彥기자)
- 출판협, 회장퇴진 싸고 표류-출협이사회 운영의 문제점 제기로 성명서 발표한 것이 발단/회장 유임의결 비난 성명서 발표에 재유임결의로 반발(한겨레신문 8월10일 신연숙기자)
- 윤이상씨 음악세계 담긴 「상처 받은 龍」 국내 첫 완역-루이제 린저와의 對談정리 共著형식으로 출간/「東베를린사건」과 관련 남치 송환전도 상세히 밝혀(경향신문 8월10일 孫東佑기자)
- 출판협, 회장퇴진 싸고 표류 석달째-권회장 사퇴서 반쪽 이사회서 반란...반발 회오리/비사퇴 이사측 ‘명예회복’ 이유 전격 처리/사퇴측 ‘정통성 없는 결의’/양측 팽팽한 대립...두동강난 운영 불가피(한겨레신문 8월10일 신연숙기자)
- 민족음악 이로서 「노래」 3집 출간-「노래편집동인」서 부정기간행물로 펴내...식민시대·해방공간 노래운동 등 역사적 규명(한겨레신문 8월11일 김영철기자)
- 회장 복귀싸고 출협 양분 위기-출협이사회 사표반려...출판인모임, “새 단체 설립하겠다”(한국일보 8월11일 金龍善기자)
- 「교재채택료」 부조리 “교단오염”-유치원서 대학까지...교재대 50~40% 뒤틀려...중고참고서 사

- 레비 10~15만원/출판사간 로비경쟁 치열...관할구역 목계도/설문교수 176명중 174명 “경험”...지방대 더 심해(조선일보 8월12일 金泰翼기자)
- 해인사 白蓮庵에서 「禪」 이해 위한 도서 출판/심오한 「禪」 대중에게 쉽게 접목/祖師의 名言발췌...1차로 「山房夜話」 등 2권 나와/李性徹 종정도 번역작업 참여(중앙일보 8월13일 任載杰기자)
- 재일동포작가 역사소설, 잇달아 국내서 2권 출간-8·15해방 직후의 격동기 조명/李殷直작 「濁流」 金達壽작 「태백산맥」/美군정체제에의 민중저항 日語로 출판됐다 다시 햇빛(서울경제신문 8월14일 姜升遠기자)
- 임란때 왜가 약탈한 典籍 아직도 일본에-국보·보물급 464종 첫 확인/沈暎俊교수, 방일 조사 13년만에 「日本訪書志」 간행(서울신문 8월14일 趙佑石기자)
- 소설 「智異山」은 「南部軍」의 표절인가-남부군작가 李泰씨...“공표도 안된 작품 절반이나 그대로 베껴...자료 제공해준 사람들 오해받아 피해”/지리산작가 李炳注씨-“토씨까지 그대로 옮긴건 원형보존 위한 것...작품속에 출처밝혀 예의지킨 것으로 믿어”(동아일보 8월16일)
- 정치풍자 풍토·만화 인기-권력·권위瀆職 등 후련히 고발/「각하의 코」 출간 1주만에 베스트셀러 1~2위에...「보통고릴라」 10판 돌파...출판사 속편·새기획 앞다뒀다(한국일보 8월16일 金龍善기자)
- “倭약탈 典籍 조선문화 연구의 보고”-沈暎俊교수 「일본訪書志」 간행의 의미/464종 목록·해제 정리/인쇄술 규명 새 지평 열려(서울신문 8월16일 趙佑石기자)
- 서점가 선풍적 베스트셀러-빨치산 체험수기 「남부군」/흥미진진한 묘사...한달 동안 10만부나 팔려...“전반 상황에 소홀했다” 다른 생존자들 지적(한겨레신문 8월18일 신연숙기자)
- 「流民詩」 연구 활발-대표작 선집 등 출간/날카로운 현실감각...빠앗긴 백성의 비극적 삶 묘사(조선일보 8월19일 金亨基기자)
- “여성언론” 창간붐-「주간여성신문」 「우먼 프레스」 등/정보전달보다 문제제기...국민주방식 보급도(조선일보 8월19일 朴善一기자)